

글리메츠 정

글리메치이드

정부공인 KGMP

적격업체제품

전문 의약품

분류번호 : 396

【성분·함량】1정 중

글리메피리드(GP) 2.0mg

헥사메타르세스 : 청색2호

【성 상】 녹색의 장방형 정제

【효능·효과】 이 약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1.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한다.

2. 이 약은 다음의 경우 병용요법으로 투여한다.

1)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병용투여

2) 설포닐우레아제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

【용법·용량】 각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절한다. 물 1/2정 이상과 함께 씹지 않고 삼킨다. 이 약은 1일 1회 경구투여한다. 이 약은 아침식사 전 또는 첫번째 식사직전에 복용해야 한다. 이 약 복용 후에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단독요법

1) 초기용량 및 용량절정 : 이전에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글리메피리드로서 1 mg으로 투약을 시작한다. 필요할 경우, 1~2주의 간격을 두고 1 mg씩 용량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4 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했을 때 추가효과는 거의 없지만, 몇몇 환자들은 6 mg(또는 8 mg)까지 증량시킴으로써 더 나은 대사조절을 보았다. 1일 4 mg 투여가 실패하면, 먼저 인슐린 요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인슐린 또는 기타 경구용 당뇨병약과의 병용을 고려해야 한다.

2) 2차 용량조절 :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당뇨병 조절상태가 호전됨으로써 이 약의 필요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 강령이나 이 약의 투여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체중감소, 상혈변상의 변화, 또는 저혈당 또는 고혈당을 일으킬 위험성을 증가시킬만한 기타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용량조절을 고려해야 한다.

3)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 이 약 및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 사이에 정확한 용량 상관관계는 없다.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투여하다가 이 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초기용량 형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즉, 1일 1 mg으로 투여를 시작하고 1~2주 간격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전에 투여하던 약물의 효력 및 작용속성등을 고려해야 한다.

4) 투약조절 :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혈당 또는/및 요당수준을 규칙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또한 당화혈색소(HbA1c) 수준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저혈당은 곧바로 당을 섭취함으로써 즉시 조절된다. 설포닐우레아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초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심한 저혈당의 경우에는 의사의 즉각적인 처치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때때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2. 병용요법

1)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 이 약과 인슐린의 병용요법은 2차적 실패 환자에게 사용하여 공복혈당(FBG)이 150 mg/dL을 넘을 경우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을 사용한다. 이 약은 1일 1회 첫번째 식사와 함께 8 mg을 투여하며, 인슐린은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공복혈당 측정치에 따라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증량한다. 인정되지만, 가능한 한 낮아진 모세혈당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혈당과 당화혈색소만을 측정하면서 주기적으로 인슐린의 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 환자가 이 약의 최대용량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 경우, 메트포르민의 투가를 고려할 수 있다. 글리벵글라미드, 글리피자이드, 글로코프라마이드, 톨부타마이드 등의 기타 설포닐우레아제 제제와 메트포르민이 병용요법에 대해 발표된 임상정보가 존재한다. 이 약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시, 각각의 약물의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혈당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혈당조절을 위한 각 약물의 최소 유효용량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약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시 저혈당의 위험이 존재하여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다. 적절한 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 것.

1) 인슐린 의존형(제1형) 당뇨병 환자(예, 케톤혈증의 병력을 가진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케톤혈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진수 환자

2)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설포닐우레아제, 설론아미드계 약물에 대해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중증 간기능장애 또는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사용 금함) 있다. 중증 간기능장애 또는 신기능장애 환자에서는 최적의 혈당조절을 이루기 위해 인슐린요법으로의 전환이 권장된다.)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5) 중증 간염증, 수송 전류, 중증 외상이 있는 환자(인슐린요법을 적용한다.)(일반적 주의함 참고)

6)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음식물의 흡수 부전에 의해 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7)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투약 첫 주에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환자 또는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비합리적 또는 혈조농농(고령자에서 보다 자주 나타남) 환자

2) 영양불량상태, 불규칙한 식사섭취, 식사를 거른 환자

3) 근육운동과 탄수화물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는 환자

4) 식사를 변경했을 경우

5) 알코올섭취자, 특히 식사를 거른 환자의 경우

6) 신기능장애 환자가 이 약의 혈당강하 작용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7) 간기능장애 환자

8) 이 약을 과량 복용한 환자

9) 비대상성 내분비계질환(예, 갑상선기능항진증, 뇌하수체전엽의 기능이상 또는 부신피질 부전 환자) : 이들 질환은 당대사, 또는 저혈당에 대한 신체의 역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고령자

11) 기타 약물과의 병용투여(상호작용함 참고) : 이러한 경우 특히 주의 깊게 혈당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이러한 요인들 및 저혈당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저혈당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용량 또는 투약법 전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투약도중 기타 질환이 발생하면 용량 또는 환자의 생활양식이 바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정신적으로 저혈당, 고령자, 자율신경계 환자, 또는 배타적단제, 클로니딘, 리저리딘, 구아네티딘, 기타 고강간강지단제 등을 병용투여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에 의한 저혈당의 증상(이상반응함 참고)이 완화되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3. 이상반응 : 이 약의 임상시험 결과 및 기타 설포닐우레아제 약물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다음의 이상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1) 저혈당 : 이 약의 혈당강하 작용의 결과로서 저혈당이 발생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저혈당의 증상으로는 두통, 심한 배고픔, 구역, 구토, 피로, 수면, 수면장애, 불안, 공작성, 집중력 저하, 안절부절 또는 행동적 저하, 우울, 혼란, 언어이상, 실어증, 시각장애, 잔전, 불안전대비, 자각이상, 어지럼, 무력감, 자제력 상실, 일시적인 정신착란, 뇌경련, 졸음, 의식상실 및 혼수, 말은 흐릿, 서맥 등이 있다. 또한 아드레날린성 역조절의 징후로서 발한, 차고 습한 피부, 불안, 빈맥, 고혈압, 두근거림, 협심증, 심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 저혈당의 임상증상은 뇌졸중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경우 저혈당을 고지정된 임상증상은 얻어진다.

2) 눈 : 특히 투여초기에 혈당치 변화에 따라 조절변화, 시야흐림 등 일시적인 시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위장장애 : 때때로 구역, 구토, 상복부의 포만감 또는 압박감,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 간장 : 빈도불명지, 간내 초소 구조, 매우 드물게 간기능이상(예, 담즙배설장애, 황달)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기능부전에 이를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약을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혈액계 : 심각한 혈액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매우 드물게 백혈구감소증이나 용혈성빈혈, 적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설포닐우레아제 약물에서 재생혈상성 빈혈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투약을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사한 후 사용경험에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소판 수 10,000/μL 미만 및 혈소판감소성 자연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혈소판감소증이 보고되었다.

6) 과민반응 : 때때로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예,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을 수반한 심각한 반응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쇼크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설포닐우레아, 설론아미드 및 그 유도체와의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한 후 조사에서 이 약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피부정맥관염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반응을 포함한 과민반

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하고 반응에 대한 잠재적 원인을 평가하고 당뇨병에 대한 다른 치료를 시작한다.

- 가. 때때로 드물게 알레르기 발현, 피부의 경민감반응, 혈청나트륨 농도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에서 열거한 이상반응 중 가타 비정상적지 못한 반응, 예상치 못했던 변화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중증 저혈당, 혈액상의 백혈구 변화, 종종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 간부전 등의 몇몇 이상반응은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돌발적이거나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복용을 중단한다.
- 8) 국내에서 6년 동안 12,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2 % (149명/12,056명)로 보고되었다. 저혈당증(0.75 %/102명, 9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어지럼 0.08 % (10명), 간기능이상 0.07 % (8명), 복통 0.06 % (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관음염, 소화불량, 얼굴부종이 각 2례, 발기불능, 발도, 안면홍조, 위염이 각 1례씩 보고되었다.

4. 일반적 주의

- 1) 최적의 혈당조절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약의 규칙적인 복용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운동요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체중감량 등을 병행해야 한다. 혈당조절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혈당)의 임상징후는 빈뇨, 갈증, 구갈, 피로감 등이다.
- 2) 투약을 시작할 때 의사 또는 약사는 이 약의 효과 및 위험성, 그리고 식이요법·운동요법과 병행할 때 이 약의 효과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3) 저혈당은 당갈루코스 또는 설탕, 예를 들어 설탕탕이나, 당이 첨가된 과일주스, 당이 첨가된 차 등을 섭취함으로써 대부분 즉시 조절된다. 이를 위해 환자는 최소 20 g 정도의 당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저혈당의 위험성, 증상 및 치료, 저혈당 발생소인을 환자 및 환자가족에게도 설명한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인공감미제는 저혈당을 조장하는데 효과가 있다.
- 4) 설탕보충제에 약물을 투여했을 때 초기에 성공적으로 대체할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 또는 약사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심한 저혈당의 경우에는 의사의 적극적인 처치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 5) 다른 의사 또는 약사에게 치료받을 경우에, 임신, 시고 후, 임신할 때 환자는 자신의 당뇨병에 및 이전의 투약기록 등을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
- 6)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외상, 수술, 발열성 감염증에서 혈당조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혈당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슐린 요법으로 전환한다.
- 7) 투여하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혈당, 요당을 정기적으로 감시하여(또한 당화혈색소(HbA1c)의 비율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권장된다).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속히 다른 제형으로 변경한다.
- 8) 특히 투여초기, 투여약물을 변경한 후, 또는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저혈당 또는 고혈당에 기인한 민첩성장애, 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능력, 기계작동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9) UCDP(University Group Diabetes Program)의 연구에 따르면, 설탕보충제에 약물(플루타이드 1.5 및 1.5 g)을 정기 투여한 경우 식이요법 단독 또는 식이요법과 인슐린 병용투여의 경우와 비교해서 심장관계 장애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옹골성 변질: G6PD 결핍 환자가 설탕보충제에 약물을 복용하면 옹골성 변질을 일으킬 수 있다. 글리메피리드는 설탕보충제에 속하므로 G6PD 결핍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해야 하며 비설탕보충제에 약물의 고제를 고려해야 한다.

5. 상호작용

- 이 약 투여 중에 다른 약물을 병용투여하거나 다른 약물 복용을 중단한 환자에서 혈당조절이 변할 수 있다. 이 약 또는 기타 설탕보충제에 약물의 사용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 약은 CYP2C9에 의해 대사된다. 그러므로 이 약과 CYP2C9 유도물질에, 라미프린 또는 억제제(예, 플루코나졸)를 병용투여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혈당강화작용을 증가시키는 약물: 인슐린제제 및 기타 경구용 혈당강화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 ACE억제제, 알코올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남성호르몬제, 클로르페니콜, 무마린계 항응고제, 시클로스포리딘, 디아제팜, 펜토미딘, 페니라미드, 피리다이트제 약물, 플루옥세틴, 구아네티딘, 이프소피리드, MAO억제제, 미코나졸, 플루코나졸, 페라미노노살리실산, 펜복시필린(고용량을 비경구투여할 경우), 페비탄트론, 아지프프라존, 옥시탄부타존, 프로베나돌, 퀴놀론계 항균제, 살리실산제, 삼탄피라존, 클레르티로마신, 살몬아민, 디에트라사일메린계 항생제, 트리토부마린, 트로포스피리드, 교감신경 억제제
 - 3) 혈당강화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 아세티살리드, 브리비탈린제 약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디아제팜, 이노제, 에페드린(아드레날린) 또는 기타 교감신경흥분제, 글루카곤, 원하제(장기간 복용), 니코틴산(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및 니코틴산 유도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경구용피임약, 페니타이진제 약물, 페니토인, 리튬염, 갑상선호르몬제, 클로로프로마진, 아소나이드
 - 4) 혈당강화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약물: H₂수용체 길항제, 베타차단제, 클로니딘, 레세르핀
 - 5) 베타차단제는 내당능을 저하시킨다. 당뇨병 환자에서 내당능 저하는 대사조절을 변화시킬 수 있다. 베타차단제는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역조절 실패에 기인).
 - 6) 저혈당에 대한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 징후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는 약물: 교감신경 차단제, 베타차단제, 클로니딘, 구아네티딘, 레세르핀 등) 갑상선 또는 만성 알코올 섭취는 이 약의 혈당강화작용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8) 이 약의 병용투여에 의해 무마린계 항응고제의 작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6. 일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1) 태아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 또는 임신할 계획이 있는 환자는 의사에게 알리고 인슐린 요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 2) 젖에 대한 생식시험에서 모체의 혈청 및 우유와 자신의 혈청에서 유한한 농도의 글리메피리드가 관찰되었다. 설탕보충제에는 사람의 우유로부터 분비되므로 신생아가 우유를 통해 이 약을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유부의 여성에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슐린요법으로 전환하거나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 3) 젖에 대한 일부 시험에서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 고용량의 글리메피리드에 노출된 젖의 수유가 산모의 수유에 심각한 단축, 비후, 굴곡의 골격기형이 나타났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신장을 통해 상당한 양이 배설되므로 신장기능이 감소된 고령자에 투여하는 경우 용량상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 9) 과량투여자의 처치: 이 약의 과량투여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구토를 유발시키고 다음에는 환자에게 혈청량(혈청) 및 황산나트륨(하제)을 함유하고 있는 정맥용 또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 위세척을 실시해야 하고 혈청량 및 황산나트륨은 나중에 사용한다.
 - 10) 과다복용이 심각하여 저혈당성 혼수상태가 잔란 또는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 농축(50 %) 포도당 주사액을 급속 정맥 내 주입해야 한다. 이후 혈당을 100 mg/dL가 넘는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속도로 보다 희석(10 %) 포도당 주사액을 연속 주입한다. 명백한 임상적 회복 후에도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환자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2) 의약품은 원래 용기에 깨나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약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 용기에 넣어 꼭 닫아 보관한다.

11. 기타

- 1) 컷트에 대해 30개월간 완전한 식이상태에서 최대 5,000 ppm의 용량으로 투여한 실험에서표면적용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약 340배) 발암성의 증거는 없었다. 마우스에서 24개월간 글리메피리드를 투여한 결과 용량과 관련된, 만성적인 폐독 지극의 결과로 판단되는 암성의 폐장선종이 증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마우스의 선종형성에 대한 무형용 용량은 원전식이 조건에서 320 ppm 또는 46 ~ 54 mg/kg/day였다. 이는 표면적용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최대 권장용량인 1일 1회 8 mg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 2) 글리메피리드는 일련의 in vitro or in vivo 돌연변이 실험에서 돌연변이가 없었다.
- 3) 최대 2,500 mg/kg의 용량으로(표면적용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1,700배) 노출된 수컷 마우스 수태력에 대한 글리메피리드의 영향은 없었다. 글리메피리드는 최대 4,000 mg/kg의 용량으로(표면적용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최대 권장 용량의 약 4,000배) 투여하였을 때 수컷 및 암컷 컷트의 수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포장단위] 30정, 100정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C)보관

* 본품을 구입할 때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변색 또는 오손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본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의 용어설명 및 기타 자세한 약품 정보: 이디드(http://ezdrug.mfds.go.kr) ~ "정보마포" - "약품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첨부서 작성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www.i-pharm.kr이나 (060)557-10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OUL
마음속의 건강을 위하여
(주)서울제약
경기도 성남시 경계동 59
Tel : 031-557-1020 Fax : 031-557-1021

(주)아이엘도약
인한광역시 남동구 학마로 316
Tel : 051-959-1020 Fax : 051-959-2753

문서개정일 : 201411

메츠코리아(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9
Tel : 031/57-3090 Fax : 031/57-3091